

# 예술인 산재보험 혜택 이야기

“보호받는 예술인,  
안전한 예술활동을 위한!”



## 산재보험이란?



직업 예술활동 또는 업무와 관련된 부상·질병·사망 등의 재해 발생 시 예술인의 재할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치료와 생활보조를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



예술인은 중소기업사업주 형태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며, 실제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 선택에 따른 등급별 보험료 적용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산재보험 사무대행 및 보험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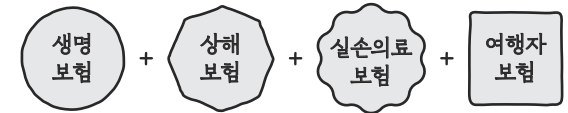
## 산재보험의 장점

**장점 1**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 안정적 보장

**장점 2** 재해 정도에 따른 보장 혜택이 포괄적

- 가입 연령 제한 및 병력 등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없음
- 상해 위험 및 산재 이력에 따른 가입 제한이 없음

**장점 3** 통합적 성격의 보험



**장점 4** 다양한 보상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생활비) 지원,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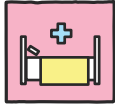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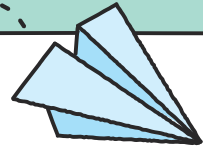
**장점 5** 저렴한 보험료

- ① 1등급~12등급 중 원하는 보험료를 선택하여 가입
- 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납부 보험료의 50% 지원

\* 1등급 신규가입자의 경우 가입 첫 6개월간 90% 지원, 이후 50% 지원



# 산재 발생 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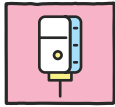
## ▶ 요양급여

- 산재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급여로써 업무상의 사유로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진찰부터 치료와 입원, 수술, 재활 등의 비용을 지급



## ▶ 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으로 예술활동을 하지 못한 기간에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보호를 위해 임금 대신 지급하는 급여
- 1일당 지급액은 산재보험 가입 시 선택한 등급별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 ▶ 상병보상연금

-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중증요양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따라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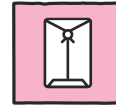
## ▶ 장애급여

-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 장애보상연금 또는 장애보상일시금으로 구분되며, 장애등급(1~14급)에 따라 차등 지급



## ▶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
- 치료를 끝내고 장애 상태가 중하여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 ▶ 유족급여

- 산재승인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



## ▶ 장례비

-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산재승인자의 장례를 지낸 유족 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



## ▶ 직업재활급여

- 장애급여자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급여

### 산재 발생 시 보험 혜택 대표 사례

- Q.** 방송과 연극 무대에서 활동하는 배우입니다. 방송 촬영 도중 재해를 입어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A.** 요양급여(치료비 등)가 지급됩니다. 또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생활비)를 받을 수 있고,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급여도 지급됩니다.

# CONTENTS

Intro	산재보험이란?	02
	산재보험의 장점	03
	산재 발생 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04
Chapter 1 예술인이 들려주는 산재 이야기	거리공연의 돌발상황에서도 나를 지켜 주는 산재보험 <b>해금 연주가 은한(송해연)</b>	10
	책임의 무게와 무대에서의 사고, 그리고 산재보험의 위로 <b>배우 전유경</b>	14
	비보이로서의 각오와 부상에 대한 체감 <b>비보이 이승진</b>	18
	변화하는 예술계, 안전한 무대를 위한 산재보험 <b>배우 이민영</b>	22
	작은 상처로 얻은 큰 교훈, 사고는 늘 찰나에 벌어집니다 <b>도예가 무진(신원동)</b>	26
	안전한 음악생활을 위한 든든한 지원 <b>작곡가 임희중</b>	30
	저금 들 듯 유지한 산재보험이 나를 지키다 <b>토우 공예가 임선희</b>	34
	연주가의 직업병, 산재보험에 대한 오해와 깨달음의 순간 <b>드러머 김명진</b>	38
	글 작가에게도 산재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요 <b>글 작가 송아론</b>	42
	촬영장으로 향하는 새벽길에 일어난 교통사고 <b>배우 김준성</b>	46



Chapter 2	<b>더 많은 예술인의 산재 사례</b>	52
-----------	----------------------------	----

Chapter 3 알고 보면 어렵지 않은 예술인 산재보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60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싶어요	61
	산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62
	산재보험 청구 서류 서식	6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소개	76
	예술인 산재보험 문의처	78

# Chapter 1

## 예술인이 들려주는 산재 이야기

- 10 거리공연의 돌발상황에서도  
나를 지켜 주는 산재보험  
**해금연주가 은한(송해연)**
- 14 책임의 무게와 무대에서의 사고,  
그리고 산재보험의 위로  
**배우 전유경**
- 18 비보이로서의 각오와 부상에 대한 체감  
**비보이 이승진**
- 22 변화하는 예술계,  
안전한 무대를 위한 산재보험  
**배우 이민영**
- 26 작은 상처로 얻은 큰 교훈,  
사고는 늘 찰나에 벌어집니다  
**도예가 무진(신원동)**
- 30 안전한 음악생활을 위한 든든한 지원  
**작곡가 임희종**
- 34 저금 들 듯 유지한 산재보험이  
나를 지키다  
**토우 공예가 임선희**
- 38 연주가의 직업병, 산재보험에 대한  
오해와 깨달음의 순간  
**드러머 김명진**
- 42 글 작가에게도 산재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요  
**글 작가 송아론**
- 46 촬영장으로 향하는 새벽길에  
일어난 교통사고  
**배우 김준성**

## 해금 연주가 은한(송해연)



## 길거리 예술가가 자리한 안전의 사각지대

저는 해금 공연을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버스킹을 좋아하는 버스커이기도 합니다. 공연을 하러 오가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얻은 적은 있지만 대체로 '재해'의 위험과는 거리가 먼 직군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죠. 알고 보면 이 또한 산업재해에 해당된다는 것을 많은 예술인들이 모를 것이라 생각해요.

또 실질적으로 저 같은 여성 예술인이 겪는 어려움은 일상과 밀접해 있어요. 공연 중에 돌발 행동을 하는 관객, 공연 전후로 위협적인 언사를 하는 스토키 등 병원이나 보험사보다는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순간이 더욱 많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 반값 할인이 가져다 준 버팀목

그러던 어느 날 복지재단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예술인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것도 반값이나! 직업 특성상 수입이 불규칙해서 보험 가입에 대한 허들이 높았는데, 반값이라는 말에 큰 고민 없이 바로 가입했죠.

평소 해금을 연주할 때 반가부좌 자세로 인해서 골반이나 허리 통증을 달고 살아요. 또 손목 통증도 언제나 함께하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가 생기기 시작한 시기였던 게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렇다고 정말로 제게 사고가 벌어져서 보상을 받게 될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공연 도중에 신체 부상 사고가 발생할 줄은 상상하지 못 했고, 저렴하게 가입한 보험이 이 뜻밖의 사고에서 최대한 빨리 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 바람 부는 날 일어난 돌발사고

그날은 바람이 아주 많이 부는 날이었어요. 지역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축제였는데, 무대 뒤쪽에 설치되어 있던 나무판자로 만든 무대 배경이 바람을 위태롭게 버티다 하필이면 제 머리 위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관객 분들도 관계자 분들도 모두 놀란 순간이었지만 막상 저는 해금의 안위부터 챙겼던 것이 기억나요.

제 얼굴이 쿠션이 되었던 덕인지 해금은 멀쩡했고, 해금이 부서지지 않았다는 걸 확인한 후에야 목과 얼굴에서 심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관객들을 앞에 두고 아픈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한 공연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어린이들이 충격 받도록 둘 수도 없었고요.

## 아파도 멈출 수 없는 우리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한 통증으로 정말 힘들었지만 더욱 힘들게 한 부분은 사고 후에도 태연해야 한다는 의무감이었습니다. 당시의 공연은 물론이고 이후 연달아 있는 공연도 아픈 몸을 이끌고 진행해야 했던 부분이었죠. 주최 측과 관객들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이 사고의 불행이 부상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다행히 당시 사고에서는 머리에서 충격이 느껴지자마자 몇 년 전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곧바로 떠올랐어요.

통증이 머릿속을 지배하던 때 위로가 되어 준 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험을 믿고, 축제를 망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아픔을 꼭 참고 연주를 모두 끝낼 수 있었습니다.



## 고진감래와 같은 청구과정과 수급비

그렇게 약 두 달간의 수급을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엔 다들 “산재처리 그거 쉽지 않을 텐데”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들려 줬어요. 아니나 다를까 보험 청구가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 절차가 정말 복잡하게 느껴졌어요. 어떤 병원을 가야 하는지부터 제출 서류 보완하는 일까지 쉬운 게 없었죠. 하지만 차근차근 서류를 떼다 보니 서류는 하나 둘 마련되어 있었어요. 진료비세부영수증, 사고에 대한 증거 기록물, 치료 병원을 한의원으로 옮기는 요양이관신청서 등 생소한 서류들을 준비하다 보니 오히려 보상의지가 더욱 불타올랐어요.

나중에서야 이런 서류 작성 가이드가 예술인복지재단에 있다는 걸 알아서 무척 아쉬운 마음이에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청 승인이 난 후로는 보상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어요. 첨부한 영수증대로 무엇 하나 빠뜨리지 않고 요양급여가 입금되는 것을 보니 정말 다행이다 싶었죠. 진료비, 치료비, 약값 모두 다하면 제게는 제법 큰 부담이 되는 돈이었거든요.

## 고마운 예술인복지재단

많은 예술인들이 부상이나 부상 후 경제적인 걱정으로 예술 활동을 잊지 못하고 있을 텐데, 모두 두려워 말고 힘내서 예술 활동을 하면 좋겠어요. 저는 흑시라도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 복지재단 홈페이지를 자주 들르는 편이에요. 우연찮은 기회로 보험에 가입하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도움을 받았기에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싶어요.

예술인 여러분!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세요! 제 사례를 통해 많은 예술인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상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일로 예술인복지재단의 노고를 알게 되었으니, 무척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 배우 전유경



### 감정의 분출구가 되어 주는 연기

연기를 시작한 건 평소 억누르고 사는 일련의 감정들을 마음껏 발산하고자 함이었어요. 우린 저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살잖아요. 기쁨, 슬픔, 분노 모두가 사회에서 튀지 않도록 다듬으며 살아가죠.

저는 유달리 감정 분출이 서툴렀어요. 주변에서 안타까움을 전할 정도로 제 감정을 많이 누르고 살거든요. 그래서 연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무대 위에서 다채로운 감정을 마음껏 분출한다는 사실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좋은 극을 위해 감정 표현에 힘쓸수록 배우들에게는 흥터의 그늘이 짙어지는 것 같아요.

### 배우에게 오는 무대 안팎의 고비

무대 위에서 감정 전달을 하려면 몸짓은 필수 요소가 돼요. 그래서 감정을 담은 동적인 몸짓을 반복해서 행할 때면 몸 곳곳에 무리가 누적되죠. 하지만 그런 건 한 순간에 표가 나지는 않잖아요. 저와 남편은 같은 일을 하는 부부 예술가라 가까운 곳에서도 여러 사례들을 많이 접하는데요.

한 번은 남편이 짚신을 신고 무대 위를 뛰어야 하는 장면을 반복해서 연습해야 했던 공연이 있었는데 모든 연습이 끝난 후 남편을 비롯한 배우들 모두가 무릎에 물이 차서 고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또 어느 날은 10시간이 넘어 가는 촬영 대기 시간을 선 채로 고스란히 견뎌야 했던 적도 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허리 통증이 심해졌죠. 물론 한 순간에 일어나는 일도 적지 않아요. 제가 무대 위에서 몸싸움을 하는 장면이었는데, 걱정적으로 연기하다 보니 무릎이 무대 바닥에 곧장 내리 찍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 책임을 다하고 만나고야 만 불청객

당시에는 무척 아팠지만 남은 공연을 모두 소화해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됐고, 그게 실수였죠. 곧 팬찮아질 줄 알았던 무릎의 통증이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얼마 남지 않은 공연이니 이것만 마무리하자고 생각해 병원 방문을 미뤘고, 나중에 방문한 병원에서는 MRI를 찍어 보자고 제안했죠. 검사 결과 그냥 타박상인 줄 알았던 부상이 사실은 염증이 만들어 낸 통증이었어요. 왜 바로 오지 않았냐는 의사 선생님의 핀잔에도 '그래도 공연은 끝내고 오는 게 마음이 편했어'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몸도 아프고 서럽기도 한 순간이었지만, 남편의 권유 덕에 들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 비교적 수월했던 승인 절차

많은 사람들이 산재보험은 인정받기가 어렵고 여러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했지만 저는 자세한 사고 경위로 비교적 수월하게 승인을 받을 수 있었어요. 예술인들은 평소에도 자기 권리를 챙기는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인데 정말 고마웠죠.

'프리랜서'라는 입장이 그런 것 같아요. 언제나 을의 입장으로 서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다치거나 손해를 입어도 피해를 호소하는 것조차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은 제가 주변 동료들에게 아무리 산재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도 시큰둥한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산재보험은 일을 하지 못할 때 휴업급여까지도 보장이 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동료로서 정말 속상한 마음이 들어요.



## 예술인을 위한 보호막, 산재보험

많은 예술인들이 질병 앞에 작아져요. 저 역시 허리 통증으로 첫 공연 무대에서 내려와야만 했을 때 작아질 수밖에 없었죠. 허리도 고개도 제 말을 듣지 않아 공연을 제대로 할 수도 없어서 힘들었지만, 저 때문에 공연의 모든 부분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더 심적으로 건디기 어려웠어요. 저는 그래서 더욱 예술가들에게 산재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은 스스로를 지키는 최소한의 보호막이에요. 몸이 아파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집단에 피해를 끼친 것 같아서 괴로울 때, 적어도 산재보험만은 우리를 지켜 주니까요. 더 많은 예술인들이 산재보험으로 스스로를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비보이 이승진



### 자신했던 순간 찾아온 뜻밖의 부상

비보잉 댄서로서 몸을 많이 쓰는 일을 하다 보니 주변에 부상 사례는 심심찮게 보였어요. 아무래도 공연이 집중되어 있는 시기에는 체력적으로 무리도 많이 가고, 야외에서 무대를 할 때면 시설이나 날씨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좁은 공간, 모래밭, 잔디밭 등 가리지 않고 춤을 추다 보면 근육의 피로도 역시 심해지고요.

그럼에도 부상 같은 건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몸을 잘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선배들의 몸조심하라는 조언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크게 한 번 다치고 나서야 '아차' 싶었죠. 지금도 예술인 산재보험이 아니었으면 어땠을지 막막해요.

### 코로나19 시기에 알게 된 예술인복지재단과 산재보험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많은 공연들이 사라졌어요. 비보잉 역시 힘든 시기를 피할 수 없었죠.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공연 무대는 호황이었어요. 누군가의 추천도 초청도 섭외도 수월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게는 예술인복지재단을 알아갈 필요가 필요하지 않은 정도였죠. 많은 예술인들이 그랬듯 코로나19 이후 모든 수입이 끊어졌고, 그제야 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해 알게 된 거예요.

예술인 패스 카드, 창작준비금 등 예술인복지재단의 각종 지원 사업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예술인 산재보험도 그중 하나였어요. 어려웠던 시기니까 대비를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 해야 했으니 바로 보험에 가입했죠. 또 지인 중 예술인 산재보험으로 혜택을 받은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 기술 연습 중 바닥에

### 내리찍힌 무릎

공연 직전 '에어트랙'이라는 고공 기술을 연습하던 중이었어요. 왼쪽 다리가 하늘에 걸려 있던 탓에 원래 등으로 들어가야 했던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고 왼쪽 무릎이 그대로 땅바닥에 내리꽂혔죠. 사고 순간에 무릎이 뒤로 밀리는 게 느껴졌고 실제로도 그랬죠.

병원에 가보니 뼈가 뒤로 밀리면서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었다는 소견을 들었어요. 모든 활동을 중단하라고 권고받을 만큼 심각했어요. 반년 정도는 치료에 힘써야 했고, 무릎 손상으로 공연과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게 가장 큰 어려운 점으로 다가왔죠.

## 산재보험 청구, 의외로 간단하고 빠른 경험

산재보험 보상 청구가 꼭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진단서, 경위서, 치료비 영수증들을 모았어요. 후유장애진단서 같은 경우에는 꽤 고가였던 터라 산재보험 승인이 정말 절실했죠. 처음에는 청구 서류 제출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는데 의외로 어렵지 않았고, 증빙서류도 진료 과정에서 있었던 인대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검사했던 과정으로 대체할 수 있었어요. 그날의 부상 때문에 지금도 후유증이 조금 남았지만 그래도 예술인 산재보험 덕에 걱정을 덜어서 그만큼 회복할 수 있었어요. 치료비도 치료비지만 휴업을 하는 동안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니까 더욱 안심이 되죠.

## 부상을 각오한다면 더욱, 산재보험

춤을 추는 동안 크고 작은 부상이 따르고 있지만 춤에 대한 열정이 식지는 않아요, 왼팔이 아프면 오른팔 위주로 동작을 하고, 무릎 부상 후엔 다른 기술을 더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속이 상하는 부분은, 춤을 출 때 반복될지 모르는 부상의 위험에 스스로 위축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건 반드시 극복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럴 때 산재보험 같은 부분들이 든든하게 다가오죠.



많은 비보이들이 부상을 각오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필요성을 잘 몰라요. 주변에 권해도 시큰둥한 사람들이 많고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니까 산재보험이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불가피하게 일을 할 수가 없을 때, 치료에 집중해야 할 때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템포 쉬는 구간을 제공해 주니까요. 부디 더 많은 예술인들이 산재보험으로 안전하고 파이팅 넘치는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배우 이민영



## 몰랐던 나를 발견해 가는 예술

공연 예술을 시작한 것은 제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소심함을 조금 개선하고자 했을 뿐인데 점점 변화하는 나의 모습과 사람들 앞에서 나도 몰랐던 나를 꺼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흥미로워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처음 연극에 섰던 날이 아직 잊히지 않아요. 우동 국물을 마시기 위해 손가락을 드는 장면이었는데, 손에 들린 손가락이 덜덜덜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무대 위에서 긴장에 휩싸이던 시기를 지나 공연 예술가로서 14년의 시간을 쌓았습니다. 지금은 극장, 거리 가리지 않고 공연 그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관객들을 만나는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나의 특기가 주는 훈장, 부상

연기를 준비하면서는 나만의 무기를 하나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장착한 특기가 바로 ‘아크로바틱’이라는 것이었죠. 제가 예술을 처음 시작한 14년 전만 해도 아크로바틱은 굉장히 생소한 분야였어요. 몸을 많이 쓰는 장르이다 보니 아크로바틱을 하는 여성은 더욱 희소했죠.

저는 원래부터 운동 신경이 좋은 편이어서 아크로바틱을 나만의 특별한 기술로 만들 수 있겠다고 자신했어요. 그래서 겁 없이 도전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 덕에 즐거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크로바틱은 곡예적인 행위가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무리 운동 신경이 좋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상의 위험과 자꾸 가까워져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 무대 위에서 작아지는 순간

저는 다채로운 경험에 열려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예술 분야와의 협업을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야의 공연 예술을 경험해 봤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대다수의 공연 예술인이 처한 부상의 위험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무대 위에서 사람들은 연출진은 권위적인 위치에 계신 분들이라, 위협할 수 있는 디렉팅에도 선뜻 못하겠다는 의견을 내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연습 중에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며 임하는 동료도 있었고, 저 역시 그러한 디렉팅으로 인해 사고가 났었습니다. 공연 연습 첫 날이었고, 상대 배우가 제 몸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었는데, 매트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옷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만 그대로 얼굴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사고가 일어난 것이었죠.

## 최후의 안전선, 산재보험

사고 당시 코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고 코가 회복되기까지 6개월이 걸릴 거라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6개월을 오롯이 회복에 집중하기란 쉽지 않아요. 때문에 요양급여는 무리 없이 받을 수 있었지만 휴업급여 신청은 어려웠어요. 사고 당시의 공연만 하더라도 배우가 교체되긴 했어도 특정 동작은 저만이 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부라도 반드시 참여해야만 했거든요. 적어진 페이로 큰 리스크를 안은 채 무대에 서야만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또 저희에게는



필드에서 얼마나 활발히 하고 있느냐가 다음 공연의 기회를 잡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여유롭게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죠. 코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무대에 오르는 상황에서 산재보험은 아주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재보험 청구를 하면서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예술 활동 중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저는 언제나 영상을 찍어 두는 편이라 제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실제로 제출을 요구받지는 않았거든요. 내가 처한 위험과 안전한 예술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나라가 인정해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느껴졌어요.

## 변화하는 시대만큼 변화해야 하는 사람들

얼마 전 동료 배우와 나눈 대화가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 동료는 다른 팀에서 공연을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해당 팀이 안전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정말 위험한 환경의 공연이 만들어지더라는 것이었어요. ‘설마 무슨 일 있겠어?’라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나왔다고 했죠. 산재보험이 말해 주듯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제도적으로도 예술인들이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잖아요. 공연을 연출하는 분들께서도 안전에 대한 염려를 더 많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예술인 분들도 위험에 내몰리더라도 자기 몸을 더 아끼고 지키는 마음에서 더 강력하게 안전의 의사 표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산재보험이 있더라도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일 테니까요.

작은 상처로 얻은 큰 교훈, 사고는 늘 찰나에 벌어집니다

## 도예가 무진(신원동)



## 도자기에 흠어지고 자란 소년

자라는 내내 도자기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도예 명장이시고, 친구들 부모님도 도예를 하시는 그런 환경이었죠. 자연스럽게 저 역시 도예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하지만 자연스레 따르게 되었다고 기존의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아요. 아버지가 보여 주신 숙련되고 전통적인 도예 위에 저만의 해석을 담아 미래지향적인 작품을 만들고 있죠.

현대인들도 도예를 향유할 수 있도록 예전의 문화와 방식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느낌을 중시하는 제 작품을 보시는 분들이 반감을 느끼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덕에 더욱 확신을 가지고 작품 활동에 임할 수 있게 된 지금입니다.

## 거친 과정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

도예 분야에서 사고와 질병은 굉장히 잦습니다. 어릴 때부터 누비던 공간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두 지켜볼 수 있었죠. 토련기라는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그러니까 흙을 반죽하는 기계에 손이 절단되는 사고나, 흙을 밀어 주는 롤러에 끼어서 손이 으스러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는 곳이 도예 현장이에요. 도예를 함에 있어 꼭 필요한 공정이지만 많은 위험을 안고 있는 과정이죠. 직업병으로는 디스크가 아주 흔하고요. 저 역시 디스크로 반년을 누워 있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작업실에서 손등이 찢어지는 사고가 제게 일어났을 때는 정말 아찔했어요. 아주 커다란 사고는 아니었지만 많은 사고들을 보고 듣고 자랐으니까,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 작은 도구에서 비롯된 사건

사고는 정말 찰나에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작업 도구 중 하나가 떨어진 것이었죠. 도예 과정에는 큰 사고를 내는 아찔한 기계들도 자리하고 있지만 손으로 쥐는 작은 도구들 역시 예리한 칼날과 같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 제법 위험이 따릅니다. 그때 떨어지던 도구가 제 손등 위를 지나가서 피가 제법 많이 나는 상처가 생겨 버렸죠. 지금은 작은 흉터만 남은 사고였지만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보다 값비싸고 소중한 건강

예술인들은 다달이 고정 비용을 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다 보니 보험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크고 작은 사고들을 마주하며 사는 제게는 사실 보험료가 아주 저렴한 편으로 느껴집니다. 아마 다른 예술인 분들도 위험의 정도 차이만 있을 뿐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토련기나 톨러가 없는 예술 환경이라도 사고나 질병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모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OTT 서비스 구독료 정도니까요. 보험료가 익숙한 주류 문화가 생기면 OTT보다 보험료를 우선하는 예술인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인복지재단이 그 주류문화를 위해 더욱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술인을 위한 복지 혜택 산재보험

처음엔 산재보험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지 못했어요. 도예 작업에 위험 요소가 많다고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산재보험에 가입한 건 완전히 우연이었으니까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하는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예술인을 위한 혜택들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었고 그 중 하나가 예술인 산재보험이었어요. 보험료도 아주 저렴했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사고 당시에는 산재보험을 바로 떠올리지는 못했고, 아버지께서 설명을 해주신 덕에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세한 경위서 덕분인지 사고 증빙도 별다른 무리 없이 이루어졌는데, 아버지 역시 도예 활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계신 분이니까 조언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처 때문에 작품 활동에 전혀 임할 수 없었는데 약 2주라는 시간 동안 휴업급여도 보상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당장의 생계 걱정 없이 회복에 신경 쓸 수 있었습니다.



## 작곡가 임희종



## 낡은 기타로 시작된 음악의 길

초등학교 시절 뒷집에 살던 친구 녀석이 기타를 새로 장만하면서 건네준 낡은 기타가 제 음악 인생의 막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때 처음 기타에 빠져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죠.

음악가로서는 통기타 가수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작사와 작곡, 편곡에 이제는 음악 프로그램 제작 활동까지 저변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도전은 통기타가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던 게 계기가 되었지만 배우는 것들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지금은 정말 보람된 음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뮤직비디오 제작 공부도 하고 있어 무척 바쁜 일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 피로라고 불리는 직업병

제 음악 활동의 대부분은 컴퓨터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작사, 작곡, 편곡 모두 컴퓨터 앞에서 집중해야만 하는 일거든요. 오랜 시간 모니터에 집중하다 보면 눈도 아프고 목이나 허리에도 무리가 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음악 활동이라는 게 특별히 고된 노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눈이나 정신적인 피로의 누적이 꼭 필요한 일상생활을 방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그날의 사고도 그런 맥락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창작실의 전등과 전선을 체크하려고 점검하던 중이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지 못한 채 사다리를 놓고 올랐다가 발을 헛디뎈 버렸지요. 평소에 자주 하는 일이 아니라 예기치도 못하게 사고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창작실에서 일어난 뜻밖의 사고로 산재보험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고마운 산재보험

산재보험을 알게 된 건 예술활동증명을 위해 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방문했을 당시였습니다. 홈페이지를 쭉 둘러보니 유익한 정보들이 많았어요. 산재보험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는 큰 고민 없이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오더를 받아 작업하고 창작하는 예술 분야의 사람들은 월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유급 병가라는 것도 없어서 건강이 자산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시의 사고로 어깨와 허리에 부상을 입어 치료가 필요했는데, 산재보험이 힘이 되는 순간이었지요.

산재보험 보상 청구를 신청하면서 의료진의 진단서, 치료 비용을 증명하는 영수증, 그리고 부상 정도를 자세히 기술한 사고 경위서 등 다양한 서류들을 모았습니다. 산재보험이 승인되고 치료 기간 동안에는 특히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어깨와 허리 부상에 대한 치료가 중요했습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산재보험을 통해 지원받은 덕분에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산재보험은 저로 하여금 의지할 데가 생겼다는 생각을 들게 해 아주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 드디어 예술인도, 산재보험

예술인으로서 오래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예술인 산재보험은 예술계의 새로운 바람이라고 느껴집니다. 예술가들은 거의 혼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고, 직장인과는 전혀 다른 시스템에서 일을 하니까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가 보험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아주 놀라울 따름이에요.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산재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적기는 하지만 창작실에서 일어났던 일처럼 의외의 사고나 질병에 대비할 수 있고 미래 경제적 위험에서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어 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에 아주 감사합니다. 비록 아찔한 사고였지만 예술인 산재보험으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모두 보상받은 경험을 할 수 있었으니까 이 또한 앞으로의 예술 활동에 있어 심적인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기댈 곳 없는 예술가들의 안전망

사고는 있었지만 산재보험 덕분에 든든한 마음으로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을 계기로 이후에는 주변에 산재보험 가입을 자주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그런 게 있었느냐는 반응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또 대부분은 시큰둥해 하죠. 그만큼 예술인들이 보험이나 보호 제도에 취약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술 활동이 본업이신 분들께서는 꼭 산재보험을 고려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금 들 듯 유지한 산재보험이 나를 지키다

## 토우 공예가 임선희



## 배우에서 시작된 공예가의 길

저는 대학시절 국어국문학을 전공했습니다. 당시에 문학을 비롯해 극대본, 연기에 관심을 가지다가 연극동아리에 가입하게 됐죠.

처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는 배우로서 예술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모든 동아리들이 비슷했겠지만,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운영 상황에 무대에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어야 하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그렇게 공연에 사용하는 소품을 하나 둘 스스로 만들게 되었고, 흥미가 느껴져 더 열심히 만들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 만들 수 있는 소품의 다양성이 점점 커지다가 지금에 와서는 토우 공예 공방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섬세한 작업 끝에 상처 입는 손끝

지금은 토우 작업실을 만들어서 토우 디오라마 형식의 예술 활동을 하고 있어요. 흙 인형을 이용해 연극을 만드는 작품 활동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데요, 작은 인형을 섬세한 칼날로 만들어야 하다 보니 손은 언제나 상처로 가득하죠. 또 고온에서 흙을 굽다 보면 화상도 자주 입어요.

언제 다쳤는지 모르는 상처들과 흙을 만지느라 피로한 손목은 이제 대수롭지 않은 일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 저금 들 듯 유지한 산재보험

산재보험에 든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당시 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전국 500여 단체가 참여해 지방을 돌아다니며 진행하는 공연이었어요. 때문에 많은 위험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예술인들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가 되었던 것이죠. 공모를 위해서는 예술인 산재보험이 필수 가입이었기에 큰 의미 없이 가입한 거였어요. 그때 당시 공연에서 제게 산업재해가 일어났던 것도 아니라서 그랬는지 이후에도 산재보험이 제게 든든함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니다. 종종 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에도 '이런 게 있었지' 정도로 크게 존재감 있게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금하는 마음으로 유지했던 게 참 다행이었죠.



## 작업 정리 중 발생한

### 손목 골절 사고

강원도에서 주최하는 '작가의 방'이라는 문화 사업이 있었어요. 일정 기간 레지던스에 머물면서 내내 작업을 하여 전시회를 준비하는 사업이죠.

어느 날은 그 레지던스에서 목욕을 하다 넘어서 미끄러져 손목이 부러지게 되었어요. 저는 토우 작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주 온 몸에 흙이 묻어 그만큼 자주 씻어 내야 해요. 그날도 몸의 흙을 씻어 내다가 일이 벌어진 것이었죠. 욕실에서 그만 넘어서 버렸어요. 넘어지면서 손목의 뼈가 부러지고 걸으려 보기에다 확연하게 튀어나올 정도였기 때문에 바로 응급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 보상 상담을 통한 재심사 청구

사고를 당한 후 산재보험이 참 든든했어요. 수술비와 치료비를 고민하던 중에 산재보험에 청구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났거든요. 진료비와 약값에 대한 증빙 영수증을 요청 받고 서류를 준비해 제출했는데 처음에는 근로복지공단 심사에서 불승인이 나왔어요. 통상적인 작업 시간의 구분이 모호하고, 목욕이라는 것은 식사나 용변처럼 생리현상이 아니라는 이유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억울했어요. 직장인으로 치면 저는 집에서 떠나 출장을 간 거였고, 작업 후에 흙을 씻어 내는 일은 흙을 다루는 공예가에게는 필수 루틴이니까요. 처음엔 무력감이 들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예술가에 대한 이해가 적은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산재보험이 꼭 필요한 예술가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꼭 수급 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이의 신청을 했어요. 예술인복지재단에 보상 관련 상담을 요청했고,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다시 심의를 받았죠. 다행히도 재신청에서는 승인이 났습니다. 처음 불승인이 나고 승인을 위한 자료들을 준비하는 동안은 무척 외로웠지만, 예술인복지재단의 도움을 받아 승인까지 이루어져 끝에는 요양급여를 잘 보상받을 수 있어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 더 많은 예술가들이 알아야 할 예술인 산재보험

제가 처음 청구에서 불승인이 났던 건 그만큼 예술인들의 수급 신청 사례가 적었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예술인들이라고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사람들이 아닌데, 참 이상하죠? 많은 예술인들이 산재보험에 대해 많이 알고, 가입하고, 혜택을 받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예술인들 모두를 위한 길이니까, 예술인들도, 예술인복지재단에서도 그것을 알고 더욱 행동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드러머 김명진



### 타고난 취향, ROCK

어릴 때부터 음악과는 아주 친하게 지내며 자랐어요. 성장기의 많은 시간을 성당, 학교에서 밴드나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며 보냈거든요. 그러다 록 음악에 심취하게 되어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인디밴드를 결성했어요.

밴드를 시작하고 나서는 펑크나 하드코어 같은 과격하고 빠른 음악을 주로 연주했고 지금까지도 즐겁게 연주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취향은 타고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록이라는 게 비교적 메이저 장르는 아니지만 운명처럼 꽃힌 순간 헤어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사로잡혀 버렸으니까 말이에요. 그 사로잡힘 때문에 밴드 활동을 하며 생긴 팔 부근의 통증은 문제로도 여기지 않을 정도로 정신없이 드러머의 길을 달린 것 같아요.

### 연주자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질환

가벼운 통증 정도야 그냥 넘기며 지내 온 데에는 연주자라는 직업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주변에서 연주를 하는 분들을 보면 고질병 하나씩은 달고 사는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피아노든 기타든 가야금이든 드럼까지 포함한 대부분의 악기는 몸의 중심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도록 만들어요. 그런 자세로 지내는 생활이 허리 통증을 유도하고, 근골격계 질환으로 많이 나타나죠. 하지만 그런 통증이 너무 익숙한 나머지 예술 활동으로 인해 일어나는 '질환', '질병'이라고 인식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문제예요. 제가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했으면서도 산재라고 인식하기 꽤 오래 걸린 연유죠.

## 오른손잡이에게 찾아온 왼팔의 염증

예술 활동 관련해 받은 여러 교육 중 산업재해에 대한 교육이 있었어요. 예술 활동에서 특정 성분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쳐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보고 ‘아, 내가 북을 쳐서 얻은 통증이니 이것도 산업재해구나’하고 깨달을 수 있었죠.

왼쪽 팔꿈치에서 강한 통증이 느껴졌고 정형외과에 내원해서 염증이 아주 심하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다들 ‘그걸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하고 의아해 했고, 재해에 대한 증빙 자료도 제출 요청받았지만 사실 산재 질병이 명확했어요. 저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드럼 연주가 아니면 왼손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어디 부딪히거나 하는 외부 충격도 전무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 왼쪽 팔에 무리가 가해질 만한 행동은 드럼 연주가 다였어요. 증빙자료로는 요양급여 신청 후에 제 일상생활에 대한 상세한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당연하게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보상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었죠.

## 산재보험에 대한 오해

예술인 산재보험의 존재는 아주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 밴드가 큰 무대에 자주 서는 것도 아니고 크게 다칠 일이 있겠나?’ 싶은 마음에 항상 큰 감흥 없이 지나쳤어요. 그러다가 ‘청춘 마이크’라는 무대에 설 일이 생겼는데, 그 공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술인 산재보험에 의무가입을 해야 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저는 산재보험이 사보험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의무 가입이 아니었다면 아마 아직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특히 저는 장애 등급이 있기 때문에 사보험은 가입과 보험료에 대한 장벽이 높거든요. 하지만 알고 보니 산재보험은 그런 애로사항이 전혀 없고, 이렇게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산업재해 인정과 보상을 받았으니, 제가 정말 큰 오해를 했던 거죠.



## 속상한 순간 손 내미는 위로

염증 진단을 받으면서 활동을 최소화하라는 권고도 받았고,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활동만 해야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연주를 쉬면 기량도, 감도 떨어지니까 그 쉬는 시간이 프로로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대로 회복기를 갖지 못하고 통증과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이 많이 속상했어요. 많은 예술인들이 공감할 텐데, 쉬는 게 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산재보험이 더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초음파 진료 같은 부분은 꽤 큰 비용이 드는데도 보상이 되니까 안심이 되었어요. 제가 큰 수술을 받거나 한 게 아니라 아주 커다란 비용은 들지 않았지만, 예술인으로서 이런 산재보험의 테두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공연의 의무조항을 계기로 가입했지만 큰 혜택을 받은 것처럼, 앞으로 많은 공연에서 이런 의무성을 반영해 더 많은 예술인들이 산재보험의 중요성을 깨닫고, 보호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글 작가에게도 산재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요

## 글 작가 송아론



## 결실의 양면 나의 책, 나의 디스크

처음부터 예술인이 되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상상력을 발산하는 게 참 즐거웠고, 조금 커서는 패션 디자이너라는 진로도 고민했죠. 하지만 의상 디자인은 옷의 소재, 제작 방법과 같은 것에 한계가 있으니, 내가 꾸미고 싶은 대로 무한한 상상을 하기에는 소설이 제격이겠다고 생각해 군 제대 후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프리랜서 작가로 일을 하다가 올해는 ‘창작더하기’라는 출판사 설립으로 결실을 맺어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작법서, 자료집, 도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책상에 앉아 글을 쓰기 때문인지 최근에는 허리디스크 통증이 심해진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업병이 생겨버린 것이죠. 디스크 때문에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와 물리치료도 받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병원을 방문하는 일상이 이제는 제법 자연스러워졌죠.

## 술 한 잔 대신 선택한 산재보험

처음에 산재보험에 들게 된 건 우연이었어요. 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검색을 하던 차에 알게 된 제도였죠. 재단에서 보험료 환급 지원을 해 주고 있었고 매월 보험료도 술 한 번 덜 마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렴했기 때문에 가입하면 참 괜찮겠다고 판단해 바로 가입하고 예술활동증명까지 바로 마쳤던 것 같아요. 작가로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사고 위험에 대한 걱정은 워낙 적었고, 큰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상해를 입는다면 그때 용이할 줄 알았던 산재보험이 집에서 일어난 사고에서 도움이 될 줄은 몰랐죠.

## 미팅 가는 길 내 발목을 붙잡은 계단

책을 쓰는 것 때문에 미팅을 나가던 길에 일어난 사고였어요. 집을 나서면서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접질린 거였죠. 아찔한 순간이 지나자 어마어마한 고통이 몰려 왔어요. 다리가 빠르게 붓기 시작했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피멍도 질게 올라왔죠. 거의 걷지 못했던 것은 물론이고 어떤 형태든 자세를 취하려고 하면 다리까지 통증이 이어지는 바람에 앉아서 작업하는 것조차 여의치 않았어요. ‘다친 건 다리고, 손은 멀쩡하니 글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반응을 만날 때는 그렇게 속이 상할 수가 없었어요.

## 전화 한 통이 아쉬웠던 사고의 순간

요양비 청구 과정에서 사고 증빙 자료를 요청받았어요. 미팅을 가려다 못 간 것이니, 미팅을 취소하는 통화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필 그 전화 기록만 없었어요. 미팅 상대 거래처가 어머니께서 연계해 주신 곳이었기 때문에 사고 미팅 건에 대한 취소도 어머니를 통해 이루어졌거든요.

철렁했던 순간이지만 감사하게도 거래처와의 계약서 제출로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은 정말 사소한 부분이었는데 혹시 이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할까 봐 크게 염려해야만 했죠. 그렇지만 염려가 무색하게도 치료비와 더불어 생활비에 대한 보상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산재보험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까지 든든하게 힘이 되어 준 순간이었습니다.

## 예술가의 목소리가 필요할 때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받은 혜택이 정말 많아요. 창작준비금 지원도 받고,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로 생활도 이어갈 수 있었죠. 참 고마운 일들이 많은데, 예술인들의 목소리가 작게 느껴지기도 해요.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이 적극적인 만큼 더욱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예술인들이 더욱 목소리를 높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예술인들이 산재보험 혜택도 받고, 다 함께 더 나은 예술 환경을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촬영장으로 향하는 새벽길에 일어난 교통사고

배우 김준성



## 무작정 서울로, 발품 팔아 연기의 문을 열다

어릴 때부터 연기에 유독 관심이 있었습니다. 배우라는 직업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몰라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 발품을 팔아가며 연을 만들었죠. 결국 한 감독님을 만나 연락처를 교환하며 배우의 길로 무사히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초창기엔 사극에 주로 출연했는데 더울 땀 더 더뎠고 추울 땀 더 추운 의상을 입고 4박 5일씩 날을 새는 일도 많았거든요. 정말 즐거웠지만 힘겹기도 한 시간이었죠. 그러다가 이제는 제법 경력도 쌓여서 배우들이 놓인 촬영 현장에서 생기는 근로 환경 변화들이 놀라워요.

## 안전한 현장, 산재보험이 바꾼 연기자들의 근로 환경

산재보험은 우리 연기자들에게 생긴 최초의 안전장치였어요. 연기를 처음 시작했던 무렵에는 예술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적인 부분들이 정말 마련이 안 되어 있었어요. 현장에서 다치기라도 하면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다음 촬영도 놓치면서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비일비재했죠. 더군다나 사극 같은 촬영은 돌로 덮인 산, 타오르는 햇불, 활동성이 없는 의상 등 위험한 요소가 아주 많거든요.

산재보험은 부상을 당한 연기자에게 보상이 되니까, 관계자들도 부담을 덜고 촬영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죠.

##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과 시작한 산재보험

저는 산재보험이 등장하자마자 가입을 한 경우예요. 저는 한국방송연기자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연기자들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권유했거든요. 그때는 권유로 인해 가입을 했지만 부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기를 그만두는 동료들도 이따금 접하고 산재 보상을 받는 사례도 하나둘 접하고 나니 점점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고라는 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막상 일어난 이상, 산재보험이 큰 도움이 되었고 가입해 두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 뜻밖의 추돌, 새벽에 일어난 출퇴근 재해

새벽에 촬영장으로 향하는 길에 차량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픈 줄 몰랐다가 촬영장에는 가야 하니까 산재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가던 길을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지럼증이 몰려 왔고, 병원에 가니 경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3개월 정도 한방, 도수, 추나 종류별로 치료를 받아야 했죠.

가입을 권유받았던 조합의 조언으로 제 사례가 출퇴근 재해에 해당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병원을 통해 산재보험을 청구하면서 병원의 산재보험 담당자 분께서 신청에 관한 설명도 해주셨고, 조합으로부터 조언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신청 과정도 전혀 어려운 점이 없어서 더욱 편했습니다.

## 치료비부터 휴업급여까지

처음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치료비 보상을 받고,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또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그때 사고가 난 바람에 당시 제가 맡았던 역할이 다른 배우 분께 어쩔 수 없이 넘어갔고, 당분간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거든요.

따로 가입해 두었던 민간보험이 있었긴 했지만 일을 못하는 상황에서 생계보조도 필요했었고 산재보험 보상 혜택이 더 좋아서 산재보험으로 보험 청구를 했어요. 치료비뿐만 아니라 휴업급여를 통해 생활비 보조를 받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휴업급여 과정도 정말 간편했던 게 촬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면 되는 수준이었죠.

## 개선되는 제도에 발 맞춰 변화가 필요한 예술계

휴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촬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계약서가 필요했는데, 당시 저는 계약서가 없어서 다른 증빙서류를 받아 제출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구두계약으로만 일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도 많을 텐데, 서면계약서가 있으면 청구 과정이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예술인 복지법으로 서면계약이 필수가 되고 예술인 고용보험, 산재보험 덕분에 조금 더 안심하고 우리 일에 더 매진할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점점 개선되는 제도에 맞춰 예술계 관계자들 역시 의식적으로 조금 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솔직한 생각이예요. 정부에서 여러모로 힘써 주는 덕에 예술인들의 복지가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예술계 역시 적극적으로 변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Chapter 2

## 더 많은 예술인의 산재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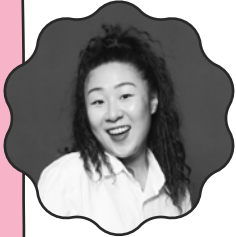
### ▶ 사례 자세히 읽어 보기

QR 코드를 찍고 더욱 다양한  
예술인들의 산업재해 보상 사례를  
읽어 보세요.



무대에서 주고받는  
다정한 교감

### 배우 고경민



거리 예술 축제에 참여했을 때였어요. 거리 공연은 외부 환경의 제약을 많이 받는 편인데 그날따라 굶은 날씨였거든요. 비가 오다가 그치다 반복되면서 축제는 계속 진행이 되던 상황이었어요. 저는 줄을 타고 크레인에 구조물이 올라간 상태에서 구조물 자체에 폭죽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심하게 불기 시작하면서 폭죽의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배우들 쪽으로 바뀐 거죠. 공연은 진행 중이었고, 저는 차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순식간에 불꽃이 바람을 타고 날아와서 의상에 붙더라고요. 당시 저는 얇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가슴 근처와 팔에 화상을 입었는데, 특히 팔 피부가 많이 손상되어서 근육까지 치료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꽤 오랫동안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치료비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교통사고,  
예술인 산재보험이  
아니었다면

### 극단 대표&배우 유학승



지방 공연을 다녀오는 길에 온 가족이 탄 차가 고속도로에서 블랙아이스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왼손과 갈비뼈 5개가 골절이 됐고, 아내와 어린 딸도 크게 다쳤습니다. 사실 보험이란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고, 번거롭게 느껴져서 산재보험은 신청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혜택을 받았던 지인들의 지속적인 권유에 마지못해 신청했는데 서류를 제출했더니 생각보다 빨리 승인 처리가 됐습니다. 사비로 했다면 금액적인 부분이 부담돼서 재활치료를 받지 않았을 것 같은데, 수술비, 입원비, 치료비, 재활비를 받으며 마음 편히 회복에 전념할 수 있었죠. 가장 좋았던 것은 휴업급여였습니다. 휴업 기간은 주치의 소견과 공단의 결정으로 회복이 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입니다. 중간에 요양 기간연장도 했고, 덕분에 아픈 몸을 이끌고 무대에 오르지 않아도 돼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음을 사로잡는  
초 단위의 예술

### 미술사 주우혁



양손에 불을 잡고 입으로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당시 코로나19가 한창이라 공연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는데, 퍼포먼스를 하는 도중에야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던 걸 알았어요. 양손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 마스크를 내리는 게 힘들어서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상황을 이어가 보려고 하다가 결국 병원에서 3도 화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미술은 손가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일정에 차질이 생겼죠. 한 달 이상 치료를 하고 약 두어 달 재활을 했습니다. 처음 치료받을 때는 산재보험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저 일상생활에서 다쳤다고만 생각했는데, 문득 떠오른 게 공연 중에 다쳤으니까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이었죠. 이후 신청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다친 부위의 사진과 담당 의사의 산재보험 소견서, 그리고 공연사진이 있으니까 증명은 어렵지 않았어요. 치료비 혜택과 휴업급여를 받으며 완전히 치료하기까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순간의  
행복에 집중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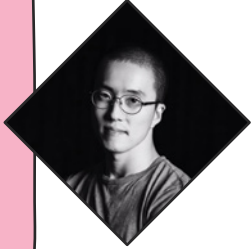
### 배우&가수 장준영



뮤지컬 오디션 중 춤을 추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적이 있었어요. 후유증으로 이후 1년간을 제대로 못 걸었어요. 당시에는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전이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서 혜택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때 필요성을 느껴서 예술인 산재보험에도 가입했죠. 그러다 웹드라마에서 수갑 차는 장면을 촬영하는데 넘어지면서 팔로 짚었다가 무리가 되었는데 촬영 막바지 때부터 손목이 견딜 수 없이 아프더라고요. 병원에 가니 손목 근육이 손상되었다고 했어요. 산재 지정 병원에 갔는데, 담당자 분께서 산재 신청 절차에 대해서 친절하고 자세히 알려 주시더라고요. 약 한 달간 치료를 받으며 치료비에 대한 지원은 물론, 휴업급여 지원도 받았어요. 생각보다 많은 혜택을 받았고 재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신적인 든든함,  
또 다른 자유로움을  
준 산재보험

무용수 김동현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연 중에 부상을 당했어요. 동료의 발에 부딪혀서 코뼈가 부러지는 사고였지요. 수술 및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실비보험도 있었는데, 제 경우에는 예술인 산재보험과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둘 다 신청을 했습니다. 수술 후 특별한 재활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디만, 일을 쉬고 3주 정도 휴식이 필요했죠. 3주라는 시간을 쉬는 동안 수입도 전혀 없고, 생활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수술비와 입원비 외에도 휴업급여가 지원돼서 덕분에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전과 후의 두려움은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정신적 든든함이 예술인으로서 정말 큰 위안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잡은 부상과  
아찔했던 순간들,  
작품 활동을 재개  
할 수 있었던 힘

미술작가 장성진



저는 목재, 철재 오브제로 조각 작업을 주로 하다 보니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어느 날은 작품을 운반하다가 그만 넘어지면서 바닥을 짚는 바람에 오른쪽 중지 손가락 골절을 당했어요. 치료 끝에 골절은 나았는데, 치료를 하느라 그동안 밀려 있던 작업을 하며 무리를 하다 보니 다시 같은 부위의 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더군요. 수술 후 2주 정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치료 과정에서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의 상당액과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놓고 쉬어야만 했던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평온한 일상에서도  
사고는 존재합니다.  
다시 기타를  
잡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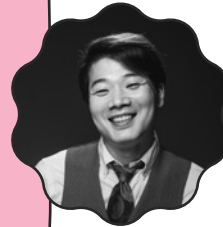
가수&음반제작자  
최찬운



복식 호흡을 훈련하기 위해서 촛불을 앞에 두고 발성 연습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양초가 타서 다 쓴 윗부분을 칼로 잘라야 했는데, 촛불을 자르다가 손목 부위를 크게 베었습니다. 일부 근육과 신경이 손상되어서 손가락 감각이 없어지더라고요. 피아노도 쳐야 하고, 기타도 연주해야 하는데 절망적이었어요.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를 위해서 매일같이 물리치료를 받으며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지요. 그러던 차에 예술인 산재보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치료비의 상당액과 40일간의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배우는 무대  
아래에서도  
다칠 수 있으니까요

연극배우 이정국



연극 무대 설치 작업 중에 철재로 만든 테이블을 옮기다가 손이 미끄러지면서 철판에 손을 베었습니다. 왼손 엄지 손가락이 10cm가량 절단됐을 정도로 큰 부상이었어요. 바로 응급실에 가서 13바늘 정도를 꿰매고 한 달 넘게 아무것도 못 하고 쉬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2주 뒤에 산재보험 생각이 나서 보험 청구를 하려고 서류를 보니 평소 접하지 않은 용어들이 많아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서류들을 들고 직접 찾아갔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작성해야 할지부터 차근차근 문의했더니 공단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고 그 덕분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 후 승인이 되어서 치료비와 휴업 급여를 받을 수 있었고 힘든 시기에 든든하고 고맙습니다.

실시간 공연의 변수,  
사고로 이어진 돌발  
상황을 극복하며

공연예술가  
허성호



공원에서 서커스 연습을 하던 도중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어요.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이 앞을 주시하지 않고, 제가 하는 것을 구경하면서 지나가다가 일어난 충돌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큰 사고로 손목, 발등, 발꿈치에서 피가 많이 났고 골절로 당장 깎치 치료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갔던 종합병원 원무과에서 일사천리로 알아서 처리해 주셔서 수월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재보험이 아니었으면 비싼 병원비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치료받는 것을 망설였을 텐데 경제적인 부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휴업급여가 지원되어서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음악을  
지속할 수 있었던  
 든든한 지원군

뮤지션 신보섭



공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왼쪽 손목이 신경 쓰이게 아팠습니다. 평소에도 어깨나 양 손목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던지라 '이러다가 괜찮아지겠지'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번엔 좀 달랐어요. 결국 병원을 찾아갔고, 아니나 다를까 손목 인대에 문제가 있어 치료가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고 처음으로 산재보험을 신청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복잡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예술인 산재보험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공연했던 장소 및 포스터, 공연비가 책정되었는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만 제출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었으니까요. 코로나19로 금전적으로도 힘든 시기였는데, 산재보험 덕분에 무리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어 고마웠습니다.

배우를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자산

배우 이다해



연극 작업 연습 중 회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바닥에 깔린 매트에 발가락이 끼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장 수술로 핀을 박아야 하는 정도의 골절상을 입었어요. 갑자기 공연을 못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이중고를 겪어야 했어요.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수술과 입원으로 청구된 병원비가 500만 원 정도였는데, 산재보험 덕분에 비용에 대한 어려움 없이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광주 작업을 마친 뒤에는 산재 전원 신청을 했고, 이후 서울에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며 활동을 못 하는 동안 휴업급여를 받아서 의지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붓을 멈춰야만 했던  
시간, 마음 놓고  
보냈던 재할 기간

서예가 박영제



종일 서예 작업을 하다가 잠시 휴식 중 넘어져 사고를 당했습니다. 갈비뼈 골절과 오른쪽 다리부터 손까지 다친 상태로 통증이 심했어요. 사고 이후 넉 달가량은 오른손을 거의 못 썼고, 아직까지도 후유증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도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산재보험 가입은 마음의 안정감을 위해서였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큰 혜택을 받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예술인으로서의 보호를 느낄 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잠시 빠듯해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예술의 힘

가야금 연주자  
김아미



산재보험은 지역문화진흥원의 청춘마이크 사업에 참여하면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공연 중 무대에서 미끄러져 왼쪽 무릎을 다치는 일이 있었는데, 진단명은 타박상이었지만 당장 공연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부상이었죠. 부상 정도를 보더니 병원에서 산재보험으로 바로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아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받을 수 있었고, 생각지도 못한 보상을 받으니 보이지 않는 관객의 또 다른 지지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 Chapter 3

## 알고 보면 어렵지 않은 예술인 산재보험

- 60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61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싶어요
- 62 산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68 산재보험 청구 서류 서식
- 7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소개
- 78 예술인 산재보험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예술인의 행정업무 어려움 해소 및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납부보험료 환급 지원

## 지원대상



### ① 가입지원 대상

: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는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에 해당하는 업무내용(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으로 활동하는 프리랜서 예술인

### ② 보험료지원 대상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일반 예술활동증명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특례'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
- 근로복지공단으로 직접 가입한 경우에는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마친 후 예술인 산재보험 누리집에서 보험사무위탁을 완료하면 보험료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① 보험 사무대행

: 가입, 정보변경, 해지 신청 대행 및 관련 상담

### ② 보상관련 상담

: 산재 보상관련 1:1 온라인 상담 게시판 운영

### ③ 보험료 지원

: 매월 납부한 보험료의 50~90% 분기별 환급 지원  
(보험 해지 시까지)

- 1등급 신규가입자의 경우 가입 첫 6개월간 90% 지원, 이후 50% 지원
- 2~12등급 가입자는 납부보험료의 50% 지원

#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싶어요

## STEP 1



### 서류준비

-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보험료 환급 통장사본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보험료환급 통장사본, 예술활동증명 특례 신청용 예술활동 계약서 또는 실적자료
- ※ 예술활동증명 완료자에 한해 보험료 지원 가능

## STEP 2



### 가입 신청

예술인 산재보험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wci.kawf.kr](http://wci.kawf.kr) ▶ 가입신청  
※ 1~12등급 보험료 중 원하는 보험료를 선택하여 '중소기업사업주' 형태로 가입

## STEP 3



### 가입 승인

신청서류 검토 후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가입 승인  
▶ 처리결과 개별 통보

## STEP 4



### 보험료 납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우편발송  
※ 자동이체, 전자고지신청, 가상계좌 발급 ▶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신청 가능

## STEP 5



### 보험료 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월별 보험료 납부내역 확인 후 50~90% 분기별 환급 지원

## 알아두어야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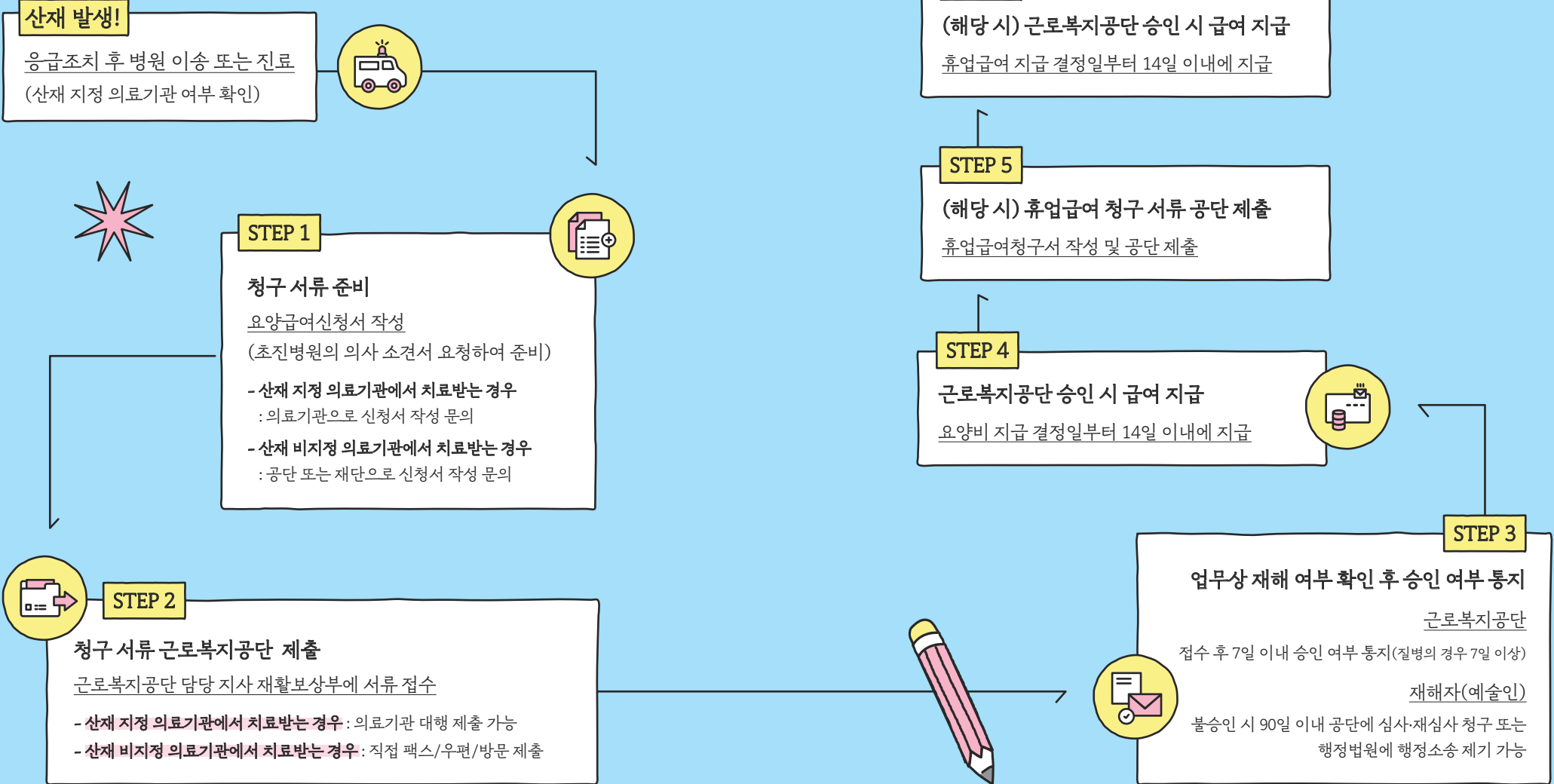
- 산재보험 효력은 재단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 접수한 다음날부터 발생
- 산재보험 가입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 승인까지 약 10일 소요
-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예술활동증명 특례 신청 시 심의 완료까지 약 2주 소요
- 보험 가입을 신청한 당해 연도에는 보험계약 해지 불가
- 보험가입등급은 매년 12월 말~1월 중에만 변경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외에는 변경 불가

# 산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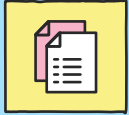
\* 보험료 체납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보상되지 않으므로, 보험료 미납여부 확인 후, 보험료 완납한 후 서류 접수

▶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 산재 지정 병원 내 산재 청구 서식이 마련되어 있으며, 병원을 통해 산재 청구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산재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재해자가 직접 산재 청구 서류를 준비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산재 승인 이후에는 지정 병원으로 옮겨야 함



# 보험급여 청구를 위한 준비서류



## 요양급여 청구 준비 서류

### -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 근로복지공단 서식 사용하되, 의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상병과 치료기간 등이 명시된 진단서(소견서)로 산재신청이 가능함
- 기타 공단의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음(재해 경위서, 진료기록부, 관련 증빙자료 등)

### ※ 청구서 작성 시 중요사항

- 재해자 인적사항, 재해 발생원인 및 상황 등 '예술활동 관련 재해경위'를 상세히 기재
- 병원에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작성 요청(병원 담당 의사 작성)
- 진료 기록부,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별도 첨부(산재 승인 시 소급 지원됨)
- 산재 승인자가 기 부담한 요양비를 청구할 경우 '요양비 청구서' 작성

### ※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신청 이외에도 1~6의 경우 해당급여를 꼭 별도로 신청하세요.

- 1 새로운 상병이 진단될 경우 ▶ 추가상병 신청
- 2 재발된 경우 ▶ 재요양 청구
- 3 직업재활이 필요한 경우 ▶ 직업재활급여 신청
- 4 장애가 남은 경우 ▶ 장애급여 신청
- 5 간병이 필요한 경우 ▶ 간병급여 신청
- 6 사망의 경우 ▶ 유족급여·장례비 신청

# 산재보험 급여 승인 여부



##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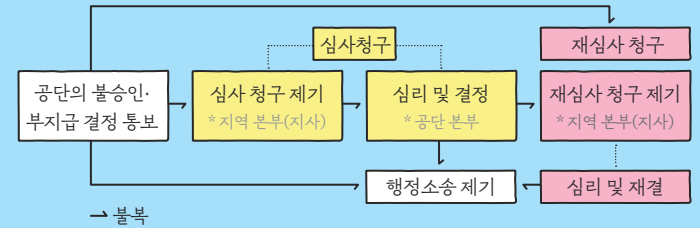
- 승인**
- 직업예술활동의 업무 수행 행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리적 필요 행위(용변 등)
  - 업무에 따른 필요적 부수 행위, 시설물의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
  - 직업활동 중 반복적인 신체부담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근골격계 질병
  - 코로나 극도의 불안, 긴장으로 인한 뇌출혈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하는 사고

- 불승인**
- 보험 가입 시점 전에 발생한 재해
  - 예술활동과 관련 없는 사적 행위



## 불승인의 경우

불승인 결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본부에 심사 청구

- 청구인 또는 대리인(변호사, 노무사 등)이 원 처분을 내린 지사에 심사 청구서 제출

### ▶ 위 심사 청구에서 불승인 시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 고용노동부 산재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제기
- 서울행정법원 또는 지사(지역본부)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산재 지정 의료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정 의료기관,  
근로복지공단 직영 의료기관



### 근로복지공단 지정 산재지정 의료기관

- 전국 6,200여 개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에서 지역별로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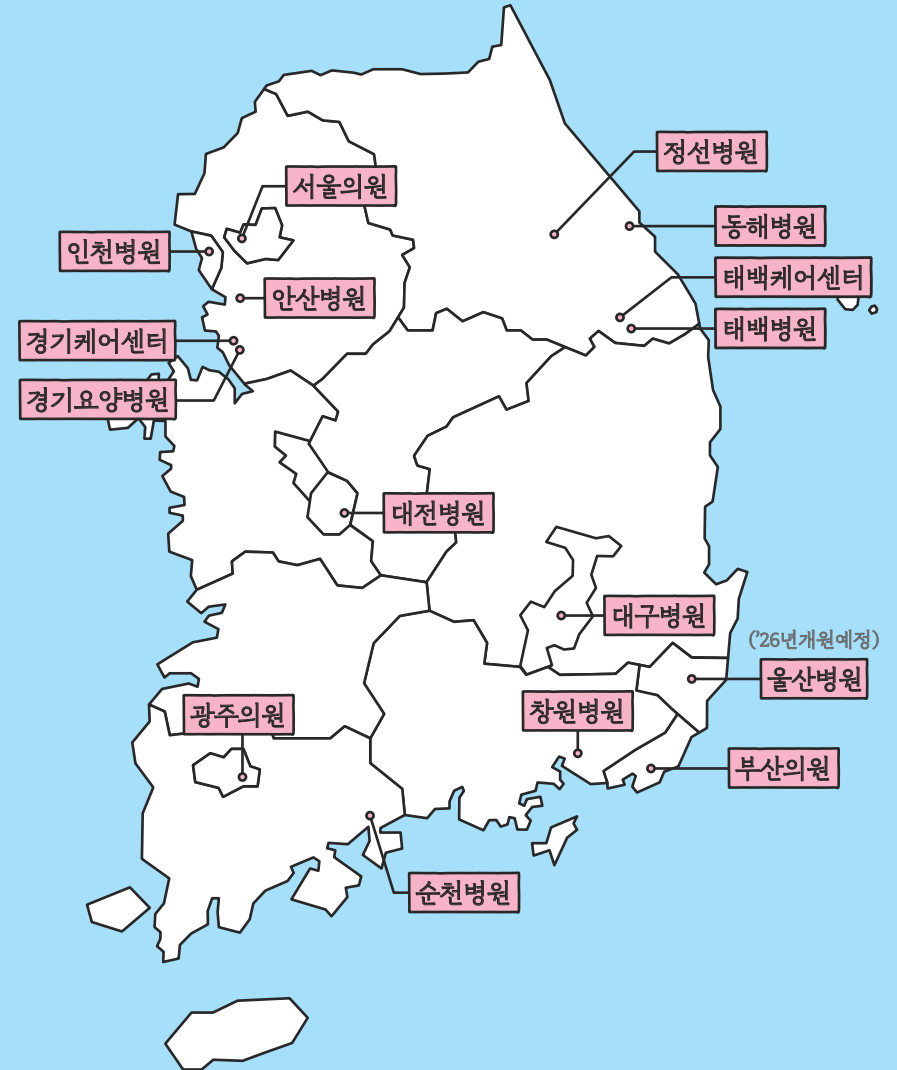
상급종합병원	56개	종합병원	317개
병원	963개	요양병원	464개
의원	2,236개	한방병원	432개
한의원	1,214개	치과병원	53개
치과의원	443개	보건소	3개
<b>총 6,181개</b>			

※ 2023년 12월 기준



### 근로복지공단 직영 의료기관

- 전국 16개



# 산재보험 청구 서류 서식

## ① 요양급여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8. 12> <개정 2021. 12. 30> <개정 2022. 12. 1>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 같은 선 안은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반드시 기재하 주시기 바랍니다. (일 면)

입수일자	입수번호	처리기간	7일
------	------	------	----

**신 영(영국인은 외국인등록증상 영영명 제출시)  
 (본인 이름) 한 예 복** 9 8 7 6 5 4 1 2 3 4 5 6 7

**주 소**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 휴대전화: 010-0000-0000  
 전화번호: 02-0000-0000

**재해 발생 일시** 2 0 2 3 년 0 0 월 0 0 일 0 0 시 0 0 분 **채용일자** 년 월 일

**퇴근시간:** 퇴근시간: 직 종:

**보통근로자 (사업주)의 관계**  
 해당 없음  
 **사업주(용역자)**  하수급사업주  
 해당 없음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기타 친인척( )

**신청 구분:**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신체·CS2 포함)  출퇴근 재해

**사업장명** (본인 이름) **사업주명** (본인 이름) **연락처(☎)** 010-0000-0000

**사업장관리번호** 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사업계시번호: )

**사업장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

**재해 발생 경위(별지사용 가능)**  
 ※ 작성방식: 어디에서(구체적 장소), 무엇을 하기 위해(작업내용, 목적), 무엇을 사용하여(작업도구, 취급물질), 어떻게 하다가(경위, 동차, 움직임),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떻게 재해를 당하였는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위 재해와 관련하여 교통사고, 음주, 폭행 등의 사유로 경합사해 신고(입수)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② 위 재해와 관련하여 119 또는 소방서에 구조요청·재난 신고(입수)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③ 위 재해와 관련하여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목격자가 있는 경우:** 성명( ), 연락처( ), 재해지와의 관계( )  
 재해 발생 후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 전액 진료(의료) 받은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소재지:  
 의료기관명: 소재지:

< 요양급여신청 의료기관 대행 제출 위임(동의)장 >  
 본인은 요양급여 신청서를 아래 의료기관이 대행하여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도탈서비스delservice.com.or.kr) 포털에 제출하는 것을 위임 동의합니다.  
**위임하는 자(신청인)** **위임받는 자(의료기관)**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산재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별지 제3호 서식)  
 위와 같이 업무상재해 인정 및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2023년 00월 00일  
 신청인 한 예 복 (서명 또는 인)복  
 대리인 (서명 또는 인)

① 재해자

② 재해 관련 내용

③ 서명인란

① 재해자

- 산재보험 가입자 본인(재해를 당한 자) 정보 기재
- 보험가입자와의 관계는 '실제사업주' 체크

② 재해 관련 내용

- 업무상 사고/질병/출퇴근 재해 중 해당란에 체크
- 사업장관리번호 기재 및 재해 발생 경위를 작성방식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

③ 서명인란

- 자필서명 또는 도장날인 필수

(뒷 면)

① 본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② 보상 또는 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내역(①에서 "예"라고 체크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수령일자	수령금액	지급한 자기(과) 또는 지급처	첨부서류
① 환의서(②관공문(또는 결정문)③영수증(④타)			

**안 내 사 항**

① 산재재해보상보험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신청서가 접수되면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 의견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처리합니다.  
 ② 재해경위 등 주요 사항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보험금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산재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에 따라 부당이익 징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사실대로 기재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사업장관리번호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el.or.kr)에서 사업장명 등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관공문 또는 콜센터(1598-0000)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요양급여신청서의 진영 상황은 고용·산재보험 도탈서비스(delservice.com.or.kr)에서 확인가능 하거나 휴대폰 인증 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는 「산재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 없으며, 「산재재해보상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보험금에 결정에 관한 통지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와 무관하게 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⑥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은 「대리인 선임 신고서」, 기재자가 있는 경우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발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차 제공 동의

귀하가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명의 **업무상 재해 여부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귀하의 소중한 건강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b>원수</b> 업무상 재해 결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민간정보 수집·이용 동의	<input type="checkbox"/> <b>동의함</b>	<input type="checkbox"/> <b>동의하지 않음</b>
※ 귀하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위 동의에 거부하더라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및 보험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동의 거부 시 건강보험 기록 조회내역 및 건강보험 가입이력에 대한 필요 업무에 가용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용 목적	이용 항목	이용기간
업무상 재해 여부 결정	건강검진기록	10년

공단과 부가서비스 홍보와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안내 및 조사 목적으로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위 동의에 거부하더라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및 보험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동의 거부 시 홍보자료 및 홍보물품 수령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목적	이용 항목	이용기간
업무상 재해 여부 결정	건강검진기록	10년

공단 및 공단과 계약된 수탁기관의 사회심리재활 및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귀하의 소중한 개인 정보를 이용 및 제3차 제공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차 제공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단 또는 공단과 계약된 수탁기관의 사회심리재활 및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용 목적	이용 항목	이용기간
- 사회심리재활(심리상담, 재활수업, 멘토링, 희망찾기지원)은 기록화(로그)함	설명, 연락처(일반전화, 휴대전화, 문자구분, 주소), 의료기관명	3년
- 직업재활(원격복귀지원, 직업훈련, 재취업)	설명, 연락처(일반전화, 휴대전화, 문자구분, 주소), 의료기관명	3년

공단 및 공단이 지정한 직장복지지원 의료기관을 통한 재활상담, 직장복귀 소견서 제공 등 직장복귀 지원 목적으로 귀하의 **민간정보**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차 제공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 직장복귀 지원을 위한 「사업주 직장복귀계회서 제출제도, 장의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민간정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차 제공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민간정보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 동의에 거부하더라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및 보험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동의 거부 시 재활상담, 직업복귀소견서 제공 등 직장복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 목적	이용 항목	이용기간
- 직장복귀계회서 제출 제도	설명, 연락처(일반전화, 휴대전화)	3년
- 직장복귀 지원 안내 재활상담	산재재해보상보험 의료기관명, 설명명, 요양기간,	
- 직장복귀지원 야생 위해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도탈	장해등급, 수급여부, 직업복귀소견서	

성명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④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청구서

- 요양급여 승인 이후 치료를 위해 휴업이 필요한 경우 작성
- 휴업기간은 의사 소견을 기반으로 정함

① 기본 인적사항

② 급여 수령계좌 작성

③ 기본 인적사항

④ 서명인 란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8.12.12., 2019. 8. 12., 2020.12.04., 2021.07.02.>

**산업재해보상보험**

**[v] 휴업급여 [ ] 상병보상연금**      **청구서**

\* 공통항은 모두 기재하시고, 해당 사항없을 경우 [v] 하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휴업, 상병 : 7일
성명 (본인어름) <b>한예복</b>	생년월일	0000년 00월 00일	
산재근로자	재해발생일	0000년 00월 00일	
수령계좌	수령계좌를 변경 하시겠습니까? [ ] 예 [ ] 아니오		
	수령희망은행 및 계좌번호: (보험급여 수령 계좌 작성) (예금주: ) [ ] 보통계좌 [ ] 보험급여 전용계좌(희망지킴이-일류금지계좌)		
청구기간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 00 일간)		
확인사항	① 청구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 ] 취업함 [ ] 취업하지 못함 ② 청구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았습니까? [ ] 예 [ ] 아니오 ③ 이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그 외 법령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을 받았습니까? [ ] 예 [ ] 아니오 ※ 배상 또는 보상을 수령한 경우 그 내역을 작성해 주세요.		
지급신청	2회차 지급분 부터(휴업급여는 입원요양기간에 한함) 자동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지급을 신청하시겠습니까? [ ] 예 [ ] 아니오		
위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청구인	한예복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small>&lt;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청구서 제출 대령에 대한 통역서&gt;</small>			
<small>본인은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청구서를 아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대행하여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el.or.kr)를 통해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small>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의료기관	(서명 또는 인)
<b>근로복지공단</b>		<b>지역본부(지사)장 귀하</b>	

① 기본 인적사항

· 재해발생일은 요양급여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② 급여 수령계좌 작성

· 해당하는 요양기간 작성(4일 이상)

③ 기본 인적사항

·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은 취업기간,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 등에는 지급되지 않음

④ 서명인 란

· 자필서명 또는 도장날인 필수

[별지 제7호 서식] <붙임> <개정 2018.12.12., 2019.8.12., 2021.07.02.>

**1 구비서류**

- 휴업급여
  1. 재해가 발생한 날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 임금명세서, 연장수당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연차수당 및 상여금이 있는 경우 재해가 발생한 날을 포함한 이전 12개월 동안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상병보상연금
  1. 최초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 별지 제8호 서식의 중증요양상태진단서
  2.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중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변동된 경우 : 별지 제20호 서식의 중증요양상태변동신고서

**2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 관련 안내사항**

- 요양을 하더라도 그 기간이 3일 이내이거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아닌 경우, 요양기간 중 취업한 시간·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 등에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 취업이란 재해 당시 사업(원래 직무 및 다른 직무 포함) 또는 다른 사업으로의 취업 뿐만 아니라 자영업 운영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취업한 사실이 있음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당이득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기타 서비스 안내**

**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지급에 있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b>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자동지급</b>	입원한지 2회분 이후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은 1회 최초의 청구로 자동지급이 되며, 별도의 청구 없이 2회분 이후부터는 자동지급됩니다. 후 일원하자가 통원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b>휴업급여 우선지급</b>	휴업급여청구서의 처리기한에 평균임금을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재근로자의 생계보조를 위하여 최저임금액을 1일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산정하여 우선 지급하고, 평균임금 산정 후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차액을 추가지급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급여청구"로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재활인식 고취 및 직업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재활스프츠 지원</b>	상병 및 장애 부위에 대한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수영, 헬스, 요가 등 스포츠 비용 지원(최대 3개월)
<b>사회 심리 재활</b>	<b>심리상담</b> 산재근로자의 불안, 우울, 가족 및 대인관계 등 어려움을 해결을 위해 <b>개인별 심리상담</b> 지원
	<b>회합찾기프로그램</b> 요양 중에 있는 산재근로자의 요양단계별(입원, 통원) <b>집단프로그램</b> 참여를 통한 심리인정 지원
	미취업 상태에 있는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생활 및 직업복귀를 위한 <b>집단프로그램</b> 지원
<b>직업 재활</b>	<b>원격직업귀환 지원</b> 원격직업귀환을 희망하는 산재근로자 또는 사업주에게 <b>재활상담, 소규모 무보급교육</b> 의 서비스 제공 산재근로자(장애등급 제12급 이상자 또는 예정자)를 원격직업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거나 '적용훈련(요양중에도 인정) 또는 재활운동' 을 시킨 <b>사업주</b> 에게 <b>직장특기지원금</b> 등 지원
	<b>재취업 지원</b> 재취업을 희망하는 산재근로자(장애등급 제12급 이상자 또는 예정자)에게 <b>직업훈련 지원</b> 및 <b>취업 일선</b>

210mm×297mm(신문용지 54g/m<sup>2</sup>)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소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2012년도에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Artists + Welfare = A W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벌마크는 행복한 예술인의 웃는 표정을 의미합니다.

예술인(Artists)과 복지(Welfare)의 머리글자 AW를 형상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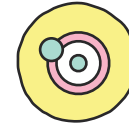
## 미션 Mission

예술인의 권리 보호 및 복지지원으로 예술 발전에 이바지



## 비전 Vision

따뜻한 복지지원 든든한 권리보장, 행복한 예술인



## 슬로건 Slogan

예술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 전략 목표

- ① 안정, 자립의 예술활동 기반 구축
- ② 예술인의 인권 및 사회적 권익 향상
- ③ 지속가능한 예술인 성장환경 조성
- ④ 신뢰, 공감의 선진경영체계 확립



## 핵심가치

**HOPE** 희망

**H** Harmony 조화, 협력

**O** Open-mind 열린사고

**P** Professionalism 전문가 지향

**E** Ethics & Fairness 윤리, 공정

# 예술인 산재보험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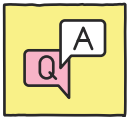
## 산재 보상 청구 관련 상담 운영

### - 신청 방법

· 예술인 산재보험 누리집 > 보상관련 상담

### - 신청 대상

- 산재 발생 후 보험급여 청구 관련 문의가 있는 예술인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보험급여 청구 상담이 필요한 예술인
- 심사청구 건이 불승인되어 재심의 청구 등 관련 상담이 필요한 예술인 등



## 산재보험 문의처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인 산재보험 사무대행 · T. 02-3668-0200
- 산재 가입, 정보변경, 해지 신청 · E. insure@kawf.kr
- 산재 청구·보상 관련 상담 · H.P. wci.kawf.kr
- 납부 보험료 일부 지원

### -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 제도 운영 · T. 1588-0075
- 산재 가입, 정보변경, 해지 승인 · H.P. total.comwel.or.kr
- 산재 승인 여부 결정
- 보험급여 지급 등

###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료 징수, 체납보험료 납부 · T. 1577-1000
- 고지서 발행, 자동이체, 전자고지 신청, 가상계좌 발급 · H.P. www.nhis.or.kr

## 예술인 산재보험 혜택이야기

발행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행인	박영정
기획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발행일	2023년 12월 15일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전화	02-3668-0200
팩스	02-3668-0380
홈페이지	www.kawf.kr / wci.kawf.kr
제작	그래픽오션 02-3422-5612
ISBN	979-11-92242-20-0

예술인 산재보험

혜택 이야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체육관광부

